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 말 밧 고 싶 었 습 니 다 !

천만군민이 손꼽아 기다리고있었다. 한초가 하루갈고 하루가 한달같이 여겨지던 날들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뵈지 못하면 참 못 이루고 당보지않아 실린 그이의 혁명활동소식에 접하면 새 힘의 용솨를 최후승리를 확인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우리 모두의 운명인 경애하는 그이의 안녕만을 바라며 방선철리의 초소들마다에, 기념비적건물들을 일떠세우는 건설장들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모습을 뵈고싶은 마음 산처럼 쌓고쌓아온 우리 조국이었다.

그런데 모두가 바라던 그 소원을 과학자들이 먼저 꿈같이 이루게 될 줄 누가 알았으랴.

안겨살 사회주의조국과 어머니당의 품이 있다는 신념을 안고 부강조국 건설에 헌성을 바쳐가는 애국자들이라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과학자들을 내세워주고 우대해주며 그들을 위해 항상 마음을 써야 한다고.

그러시고는 건설된 살림집들에 입사하게 될 과학자들과 함께 국가과학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앞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최상최대의 사랑과 영광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성과학자 주택지구를 찾으신 소식은 온 나라 과학자들만이 아닌 천만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올해에 사회경제부문에 대한 첫 현지지도로 국가과학원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의 미래를 앞당겨오는 우리의 과학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하나라도 더 해주고싶은 심정이시었다.

나라의 국력을 떨치는 훌륭한 일을 한 과학자, 기술자들은 금방씩에 알아야 한다고 하시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것은 조국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시는데는 그이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시이다. 추경의 심장 저편 펼쳐 보이지 않고 애국의 마음 어찌 드높지 않으랴.

조국은 문고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민족의 존엄과 미래를 걸고 싸우는 이 포성없는 전쟁의 마당에서 지금 과학자들은 무엇을 하고있는가. 더 높이 비약하고 더 빨리 변형하고 더 훌륭하게 문명화하는 조국앞에 우리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

오늘의 시대는 그 어느때보다 용감한 개척자들을 요구한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로 조국앞에, 인민앞에 뱀뱀이 나서야 한다. 지식경제건설의 주인공은 과학자들이다. 실제위인들의 품속에서 승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다진 이 나라의 과학자들이 불굴의 기상으로 열변백번 분발해나가고 지혜와 슬기를 남김없이 발휘한다면 정평 못할 요새란 없을것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고마운 품에서 미래의 개척자, 값높은 창조자로 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자. 인민무장화구의 구호를 들고 전체 인민이 어떤 침략자도 물리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한것처럼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인민이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자. 누구나 창조할수 있고 누구나 인재가 될수 있는 여기에 자본주의에 비한 우리의 사회주의의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

마음껏 배우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실력을 한껏 발휘할수 있는 이 고마운 품에서 미래의 개척자, 값높은 창조자로 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과 의도를 가슴에 새기자. 과학자들이여, 우리의 친근한 스승이시며 삶의 태양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 어찌 아까울 재물이 있고 뜻다 바칠 열정이 있었는가. 천만군민이여! 강성번영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자. 우리의 당당한 과학기술로 문명강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기자. 깨끗한 량심과 애국의 심장을 다 바쳐 내 조국의 날과 달을 과학기술성과들로 가득 채우자. 우리가 잘사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것을 무시워하고 우리의 과학기술의 힘이 커지는것을 두려워하는 원수들에게 성공의 명종로턴으로 된 자격을 안기자.

한없이 아름다운 나의 조국, 천만군민의 심장에서 뿜어져나오는 조국찬가로 더욱더 눈부신 사회주의 내 조국이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이여! 우리는 존엄높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과학기술의 보검으로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온 세상에 높이 떨치는 그 길에서 검증받으리라! 그리하여 한없이 뵈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 모신 그날을 과학으로 번영할 위대한 우리 조국역사에 금문자로 새겨넣으리라!

《불현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게 되니 눈물이 앞을 가리워 인신도 제대로 못느꼈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과학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었으면 자신의 로고는 생가지 않았고 현대적으로 꾸러진 위성원과 종합연구소, 태양열온실과 약국 등도 돌아보시고 소학교와 초급중학교의 층까지 몸소 한계단한계단 오르시였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국가과학원 원장의 심장만이라.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과학자들은 소원성취의 기쁨에 앞서 하마는 생각이 밀려들어 만세의 환호성속에 눈물을 감추었다.

인민의 마음을 씻어주는 저 하늘의 태양이런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맑은 가을 하늘아래 펼쳐진 방대한 규모의 주택지구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자기들에게는 영원히

우리의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바로부터 인제도 때를 만나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아무리 뛰어난 인제도 위인의 손길밑에서만 빛을 내고 건설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재능의 나배를 활짝 펼칠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우리 너무도 가슴깊이 체휼하지 않았던가. 과학자들이 그러는 설계도우에 우리의 앞날이 그려진다 하시며 그 어떤 요행수가 아니라 바로 과학기술을 몰아주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드림없는 의지다.

과학부문에 아낌없이 투자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하시어 지난해에만도 현대적인 과학연구기들을 일떠세워주시고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건설 전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불과 7개월동안에 웅장화려하게 건설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이다.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과학기술로 앞당겨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신념과 철의 의지가 온 세상에 빛을 뿌려 내 조국의 보다 휘황한 태일이 마중오고있다.

바로부터 인제도 때를 만나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또다시 큰 보폭을 내걸고있는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나라의 국력을 떨치는 훌륭한 일을 한 과학자, 기술자들은 금방씩에 알아야 한다고 하시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것은 조국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시는데는 그이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시이다. 추경의 심장 저편 펼쳐 보이지 않고 애국의 마음 어찌 드높지 않으랴.

조국은 문고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민족의 존엄과 미래를 걸고 싸우는 이 포성없는 전쟁의 마당에서 지금 과학자들은 무엇을 하고있는가. 더 높이 비약하고 더 빨리 변형하고 더 훌륭하게 문명화하는 조국앞에 우리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기여

해야 하는가. 오늘이 시대는 그 어느때보다 용감한 개척자들을 요구한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로 조국앞에, 인민앞에 뱀뱀이 나서야 한다. 지식경제건설의 주인공은 과학자들이다. 실제위인들의 품속에서 승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다진 이 나라의 과학자들이 불굴의 기상으로 열변백번 분발해나가고 지혜와 슬기를 남김없이 발휘한다면 정평 못할 요새란 없을것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고마운 품에서 미래의 개척자, 값높은 창조자로 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자. 인민무장화구의 구호를 들고 전체 인민이 어떤 침략자도 물리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한것처럼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인민이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자. 누구나 창조할수 있고 누구나 인재가 될수 있는 여기에 자본주의에 비한 우리의 사회주의의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

마음껏 배우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실력을 한껏 발휘할수 있는 이 고마운 품에서 미래의 개척자, 값높은 창조자로 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과 의도를 가슴에 새기자. 과학자들이여, 우리의 친근한 스승이시며 삶의 태양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 어찌 아까울 재물이 있고 뜻다 바칠 열정이 있었는가. 천만군민이여! 강성번영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자. 우리의 당당한 과학기술로 문명강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기자. 깨끗한 량심과 애국의 심장을 다 바쳐 내 조국의 날과 달을 과학기술성과들로 가득 채우자. 우리가 잘사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것을 무시워하고 우리의 과학기술의 힘이 커지는것을 두려워하는 원수들에게 성공의 명종로턴으로 된 자격을 안기자.

한없이 아름다운 나의 조국, 천만군민의 심장에서 뿜어져나오는 조국찬가로 더욱더 눈부신 사회주의 내 조국이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이여! 우리는 존엄높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과학기술의 보검으로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온 세상에 높이 떨치는 그 길에서 검증받으리라! 그리하여 한없이 뵈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 모신 그날을 과학으로 번영할 위대한 우리 조국역사에 금문자로 새겨넣으리라!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의 령도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천만군민 모두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자제로 아버지이시다. 그이께서 주시는 열과 정은 인민의 행복으로 꽃피우고 이 강산을 따뜻이 덮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의를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피우어야 합니다.》**

자신의 그 모든 로고는 물어두고 선군시대 또는 그 하나의 선경으로 솟아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태양과도 같이 환히

우리의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바로부터 인제도 때를 만나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또다시 큰 보폭을 내걸고있는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우리의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바로부터 인제도 때를 만나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또다시 큰 보폭을 내걸고있는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우리의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바로부터 인제도 때를 만나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또다시 큰 보폭을 내걸고있는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우리의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바로부터 인제도 때를 만나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또다시 큰 보폭을 내걸고있는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우리의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바로부터 인제도 때를 만나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또다시 큰 보폭을 내걸고있는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우리의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바로부터 인제도 때를 만나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또다시 큰 보폭을 내걸고있는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우리의 령도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천만군민 모두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자제로 아버지이시다. 그이께서 주시는 열과 정은 인민의 행복으로 꽃피우고 이 강산을 따뜻이 덮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의를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피우어야 합니다.》**

자신의 그 모든 로고는 물어두고 선군시대 또는 그 하나의 선경으로 솟아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태양과도 같이 환히

우리의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바로부터 인제도 때를 만나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또다시 큰 보폭을 내걸고있는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우리의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바로부터 인제도 때를 만나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또다시 큰 보폭을 내걸고있는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우리의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바로부터 인제도 때를 만나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또다시 큰 보폭을 내걸고있는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우리의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바로부터 인제도 때를 만나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또다시 큰 보폭을 내걸고있는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우리의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바로부터 인제도 때를 만나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또다시 큰 보폭을 내걸고있는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우리의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바로부터 인제도 때를 만나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또다시 큰 보폭을 내걸고있는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우리의 령도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천만군민 모두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자제로 아버지이시다. 그이께서 주시는 열과 정은 인민의 행복으로 꽃피우고 이 강산을 따뜻이 덮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의를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피우어야 합니다.》**

자신의 그 모든 로고는 물어두고 선군시대 또는 그 하나의 선경으로 솟아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태양과도 같이 환히

우리의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바로부터 인제도 때를 만나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또다시 큰 보폭을 내걸고있는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우리의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바로부터 인제도 때를 만나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또다시 큰 보폭을 내걸고있는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우리의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바로부터 인제도 때를 만나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또다시 큰 보폭을 내걸고있는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우리의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바로부터 인제도 때를 만나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또다시 큰 보폭을 내걸고있는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우리의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바로부터 인제도 때를 만나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또다시 큰 보폭을 내걸고있는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신심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용기의 샘이 되고 등대와 같이 환히 밝혀주는 광명이며, 어떠한 시련도 불사신처럼 이겨낼 기질을 불어주는 추동력이 있다.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승결로 미지의 세계를 정령하여온것이 우리의 과학자들이다.

심장의 고백

심장을 다시금 뜨겁게 울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단란시련을 이겨내며 달을 총총하게 밝히려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강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온 세상을 경적시키며 울려오른 절세위인의 그날의 선언을 들으며 탄탄히 꽃피날 행복에 대해서만 그려낸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던가.

과연 그 누가 인민의 그 행복을 위해 어떤 크나큰 헌신과 로고가 바쳐지게 되었겠는가, 사회주의부강영화가 어떻게 앞당겨져오는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지 있었던가. 승고한 뜻을 안으시고 우리 원수님께서 걸으신 길은 그 열마이며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또 얼마이던가. 인민의 행복찬 웃음소리 터져오를 인민의 유원지들의 오늘을 위해 흥날리는 먼지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건설장을 찾았왔으며 시며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분,

스기를 띠며 즐거운 웃음꽃을 피워갈 인민을 위해 소소리높은 마식령의 산정에서 몸소 삭도를 타고 오르시며 그 안전성과 편리성을 가능케하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그렇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으로 부르듯이 그 누가 불려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그 품에 안기고 그 누가 떠밀어서 그이를 충정으로 따르는데가 아니라. 언제나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그의 불같은 열정, 인민

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시려는 무한한 그 사랑에 감동하여 이 나라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그이를 끝까지 따르는데가 아니라.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제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이 나라 천만군민은 다시금 심장으로 웨친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십니다. 이 땅의 험한 길, 찬눈비는 우리가 다 걷고 맞겠습시다. 바로 이것이 당보에 모셔진 경애하는 그이의 영상을 경적속에 우러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마음속고백이다. 본사기자 정 순 화

해빛같은 미소는 오늘따라 강산은 왜 이리도 밝고밝을까? 하늘도 티없이 맑고 푸르고. 오늘따라 길가는 사람들 얼굴에 왜 저리도 환고 뜻깊은 기념일도 적지 않다. 어느 집에 가서 달려앞에 서면 네거리의 화대에 피어 있는 꽃들도 봄을 다시 맞은듯 생기가 한껏 흐르는데가 아니라. 애기차의 아기가 흔들는 팽팡이소리마저 어느때없이 가슴을 세계 흔든다. 아, 정말이지 모든것이 밝기만 하고 모든것이 활기가 더해졌다! ...

그날 취재길을 걸으며 이런 생각에만 잠기며. 왜 그런가고 자신에게 묻고 속으로 웨치듯 대답도 했다. 누구인들 모르랴. 책가방에도 활기차며 걸는 저 나이던 소녀에게 물어보아도 거침없이 대답하리라. **《수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며 모든 행복의 상징이다.》** 아마 사람들은 오래오래 기억할것이다. 주제 103(2014) 경애하는 원수님 소식을 기다리

며 보낸 하루 또 하루... 한날이 천 날같아서 그러도 고대하던 날을 맞이한 기쁨도 컸다. 그이의 해빛같은 미소가 간직된 그리움을 풀어주고 그 미소로 하여 생활에 굶기야 더해진 활기와 광만이 가슴 벅했다. 허나 길고길고인 현지지도의 길에서 걸으신 로고 그리도 크시건만 조국과 인민을 위해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를 일떠세우셨어 더없이 기쁘시여 우리 원수님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 더 가슴을 쳐서 사람들이는 그저 참 목매었던것이다. 그때 누구나 생각하였으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제로운 미소가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 생활에 깃들고 이 땅을 환히 밝히는 해살로 빛날수록 내 무엇을 되세겨야 할것인가? 우리 삶, 우리 운명, 우리 조국을 꽃피우는 그 빛발의 광원을 내 한 시라도 잊고 산적은 없는가? 아, 우리 원수님의 미소가 해빛처럼 밝고 따사로울수록 새차게 가슴을 두드리고두드린다.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우리가 게 보내시는 그이의 해빛같은 미소에 깃든 열화같은 인민사랑, 초보처럼 자신의 삶을 태워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는 그런신원! ...

그날 취재길을 걸으며 이런 속다짐을 하였다. 우리 원수님의 해빛같은 미소를 밝고밝은 이 땅에 울리는 인민의 그런 목소리를 들겠다. 본사기자 박 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할 불란는 맹세 하늘땅에 차넘친다.

백옥같은 총정과 결사옹위의 실천으로 받들어모시자

내 조국의 별에 비끼 불라는 소원

노래 《밤하늘의 별이여》를 들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력지구를 찾으신 소식은 지금 온 나라 과학자들과 인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게 하고있다. 영원히 잊지 못할 10월의 그날 밤부터 우리 인민 누구나 쉬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한몸을 강그러다 바치시어 인민의 행복을 아름답게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헌신의 세계, 그 사랑, 그 고고에 목이 딱딱하여 눈시를 적시는 이 나라 인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편의 노래가 고요히 울려 퍼졌다.

노래 《밤하늘의 별이여》, 우리 시대가 낳은 총정의 명곡인 이 노래는 잠 못 드는 인민의 격동된 심정을 꿰뚫어 폭발시켜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미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입니다.》

우리의 원수님께서 어머니당의 따뜻한 손길로 하나하나 품들어 마련하여주시는 행복의 창조물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역대 의 자산을 가진 자본주의 나라 대부호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며 영원히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재부가 끊임없이 창조되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아름다운 현실로 꽃피어나는 속에 이 나라 인민은 위대한 우리 당이 창건된 10월의 명절을 맞이하였다. 뜻깊은 10월을 맞으며 한없이 고마운 어머니

당에 감사의 끈결을 드러야 할 우리 인민이 위성과학자주력지구는 크나큰 사랑의 선물을 또다시 받아안았으니 고마움과 감사의 정에 앞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누를결 없는 인민의 심정이다.

행복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넘쳐나는 인민의 거리와 공원, 유원지들, 학교와 병원마다에 얼마나 뜨거운 어머니의 로고와 헌신의 세계가 깔려있는지 우리 다 알고있었다.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3년세월을 살아왔다. 인민의 행복을 가꾸며 바치시어 그 불굴의 헌신과 로고를 달리는 필수 없는 절세 위인들의 친품으로, 만경대가문의 가운으로만 여겨온 이 나라 천만자식들이다.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한 인민들 누구나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절절하게 사파바다며 동해의 《단풍》을 목격하면서 이 땅의 시인들이 저마다 기쁨의 시상을 무르익힐 때 사람들이여, 그것이 얼마나 값비싼 로고의 대가로 마련되고 송고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것인가를 조금이나마 헤아려보았던가.

노래 《밤하늘의 별이여》는 이 한밤만이라도 우리 원수님 편히 쉬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는 인민의 불라는 소원, 축원의 마음을 뜨겁게 폭발시켜주는 바늘이 되어 내 조국의 밤하늘에 절절히 울려 퍼지고있다.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우리 원수님께서 끝없는

로고와 헌신으로 지새우신 밤들이 저 하늘가에 무수한 별무리로 새겨지는것만 같아 무심히 바라볼수 없는 내 조국의 밤하늘이다.

그이께서 집무실과 야전차에서 피바 지새우신 밤은 그 얼마나 현저지도의 길에서 맞으신 새날은 또 얼마나 많은가. 피눈물의 12월의 홀러간 그 무수한 밤과 밤들에 과연 어느분이 인민과 피바 한밤을 밝히시며 인민의 심장을 울리고 상처입은 인민의 마음을 따뜻이 어루만져주시었으며 얼어든 가슴을 녹여주셨던가. 문수물놀이장의 형상인물 113건이나 보아주시고 그 끝없는 사색과 로고의 한밤을 지새우시는 우리 원수님의 끝없는 헌신의 세계를 전하는 말없는 증언자이다.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행복의 요람을 지켜주신, 지칠 줄 모르는 열정, 그 무수한 로고의 발음을 형성적으로 높이 고개 상징하고있다.

10월이 《밤하늘의 별이

여》노래를 부르는 우리 인민의 눈앞에는 마치도 저 하늘의 별빛이 태양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밤하늘을 밝히는 총정의 불빛으로, 당을 위해 별처럼 살고 당부하는 시대의 열렬한 눈빛으로 안겨온다. 행복만을 받아안고 《세상에 부럼없어야》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노래만을 부르는 인민이 아니라 우리 원수님의 천만고생을 조금이나마 가서드리고 그이의 어깨에 실린 짐을 하나라도 덜어 드리는 진짜배기 총정의 인간, 항성의 인간이 되라고 밤하늘의 별은 끝없이 속삭이고있다.

《수령님 밝이 피고있었습니다》노래를 부르면 어머니수령님의 안성을 간절히 소원하였던 우리 인민, 《강군님 찬눈길 걸지 마시라》, 《내 조국의 밝은 달아》노래를 부르며 위대한 장군님의 전신길, 현지도도길을 절절히 그려보던 우리 인민들이었다. 오늘은 《밤하늘의 별이여》노래를 지어부르며 간절한 소원을 불라는 맹세에 담고있는 우리의 천만군민이다.

10월이 더 뜨겁게 울리는 노래 《밤하늘의 별이여》는 이 나라의 수천만 아들딸들에게 절절히 속삭이고있다.

《이밤도 우리를 그려보시며 잠 못 드실 그 눈빛》, 《별처럼 많은 밤 지새우시며》와 같은 표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헌신, 지칠 줄 모르는 열정, 그 무수한 로고의 발음을 형성적으로 높이 고개 상징하고있다.

10월이 《밤하늘의 별이

여》노래를 부르는 우리 인민의 눈앞에는 마치도 저 하늘의 별빛이 태양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밤하늘을 밝히는 총정의 불빛으로, 당을 위해 별처럼 살고 당부하는 시대의 열렬한 눈빛으로 안겨온다. 행복만을 받아안고 《세상에 부럼없어야》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노래만을 부르는 인민이 아니라 우리 원수님의 천만고생을 조금이나마 가서드리고 그이의 어깨에 실린 짐을 하나라도 덜어 드리는 진짜배기 총정의 인간, 항성의 인간이 되라고 밤하늘의 별은 끝없이 속삭이고있다.

《수령님 밝이 피고있었습니다》노래를 부르면 어머니수령님의 안성을 간절히 소원하였던 우리 인민, 《강군님 찬눈길 걸지 마시라》, 《내 조국의 밝은 달아》노래를 부르며 위대한 장군님의 전신길, 현지도도길을 절절히 그려보던 우리 인민들이었다. 오늘은 《밤하늘의 별이여》노래를 지어부르며 간절한 소원을 불라는 맹세에 담고있는 우리의 천만군민이다.

10월이 더 뜨겁게 울리는 노래 《밤하늘의 별이여》는 이 나라의 수천만 아들딸들에게 절절히 속삭이고있다.

《이밤도 우리를 그려보시며 잠 못 드실 그 눈빛》, 《별처럼 많은 밤 지새우시며》와 같은 표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헌신, 지칠 줄 모르는 열정, 그 무수한 로고의 발음을 형성적으로 높이 고개 상징하고있다.

10월이 《밤하늘의 별이

인민의 결정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은 당을 믿고 당은 인민을 믿는 바로 여기에 철통같이 똘똘 수렴,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담보되어있으며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로동신문》은 지금도 나의 책상우에 펼쳐져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소식이 여기에서 실렸다.

울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은 나라 인민의 심정도 마찬가지로 서서 지난 이틀간 내 가슴이 울려 퍼지는 사투리와 일군들의 사무실과 김정수혁명장비공작작업실들의 책상우에도 그 신문이 놓여 있었다.

《순종아 기다려 경애하는 원수님 소식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분을 평등자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를 다시금 심장위로 절감하게 한 격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떨어져서 순간도 못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시어 원수님께서 잠시라도 꼭 주시었다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순결하고 뜨거운 그 목소리들

은 력사의 추억을 불러온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이 땅에 력대로 새겨진 신로군일의 력사를 송고한 군로신일의 력사로 바꾸어놓으셨었다. 하기에 우리 당은 절세의 위인들의 안성을 지켜드리기 위한 결정을 여러차례 채택하였으며 인민들은 식사로 꼭꼭 하고도 잠도 깨며 드시라는 축원의 편지도 삼가 올리였다.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당결정이라면 크고작음에 관계없이 무조건 집행하고 인민이 바라는것이려면 아무리 작은 소원도 기어이 쫓아주시시었던만 자신들을 위한 결정과 소원들만은 단 한번도 집행하지도 풀어주시지 못한신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우리 인민은 군로신일이라는 말이 이 땅에서 영영 사라졌고 하리라는 신명의 맹세를 다지였다.

그러나 물어보자 인민이여, 피눈물이 흐르던 새해전 12월의 그날로부터 우리 원수님 단 한순간이라도 편히 쉬신적이 있었는가. 어머니장군님께서 맡기고가신 이 나라의 인민을 한몸에 껴안시고 생년월일을 헤치는 심정으로 선군혁명영웅의 길에 나서시었으며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말이 달도록 쉬임없이 전신길, 현지도도길을 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혁명활동소식을 들으며 우리 인민은 자애로운 그이의 영성을 뵈옵는 기쁨만을 생각하였고 패일은 또 어떤 혁명활동소식이 전해질까 하고 기대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식을 받아안으며 우리 인민은 원수님

과 맺어진 혈연의 정을 더욱 뜨겁게 느끼고있으며 늘 머나먼 전신길, 현지도도길에 계시는 원수님의 안성만을 간절히 념원해왔다.

오늘 이 나라 인민의 심장속에는 한결같은 총정과 항성의 결정이 내려지고있다.

석란전선의 탄부들은 한발과 한 발, 한탄차만 더! 하고 웨치면서 석란산에 펼쳐나섰으며 탈곡전투에 펼쳐나선 농장원들은 한이삭이라도 더 나라의 쌀독에 넣어 위해 오름에 바람이 일도록 위하고 있다. 태양의 빛받 넘치는 위성과학자주력지구에 삶의 보금자리를 펼쳐복받은 과학자들은 최첨단과학기술의 기수가 될 맹세를 안고 과학탐구의 나래를 더 활짝 펼치고있다.

인민이 스스로 내린 심장의 결정, 항성의 결정!

그것은 우리 원수님의 어깨에 실린 짐을 어떻게 하나 기어이 덜어드리겠다는 총정의 맹세이다.

지하막장에서, 출항의 고동높이 울리는 고기배의 갈판우에서 맹세의 글자들이 번득인다.

천리방선초소의 병사들이 어깨에 뽕자라는 총장갑 하나도 결사옹위의 의지가 빛날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셔야 할 먼길을 우리가 걷고 그이께서 지셔야 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며 그이께서 마음쓰시는 고비는 우리가 넘고 헤쳐나.

이 나라 공민들의 소박하고 절절한 정성이 담긴 항성의 결정을 안고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이 역세게 나아간다.

본사기자 허명숙

김정은시대를 주체과학발전의 일대 전성기로 빛내여가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은 국가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격정에 넘친 목소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자들은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며 과학기술사업은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한 애국사업입니다.》

은정과학자기가 크나큰 격정과 불같은 맹세로 들끓고있다. 자나깨나 그러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또다시 모시고 할같은 사랑을 받아안은 국가과학원 전체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지금 자신의 한몸을 불길처럼 태우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위대한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에

결사옹위의 총정으로 보답할 열의가 차넘치고있다.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전신길은 선진적으로 지도하신 그날 높은 리상과 꿈을 안고 눈부신 과학연구성과로 부강조국건설사업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과학자들과 함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앞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한없는 믿음과 사랑, 따뜻하고 각별한 정은 조국의 과학을 반드시 세계의 명마루에 우뚝 올려세우고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주체과학의 일대 전성기로 빛내여갈 과학자들의 결사의 정신력을 총괄발시켜주고있다.

그들의 정신력을 총괄동시며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알찬 과학연구성과로 원수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로 록 하였다.》고 하였다.

국가과학원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은기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꼭 오실것이라고 믿고있었다지만 정작 뵈고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워 절딜수 없었다고, 우리 과학자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꿈에라도 그림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옵고 기념사진을 찍는 최상최대의 영광을

진지하다.

우리 국가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 위성과학자주력지구를 현지도도하심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과학자들을 제일로 아끼시고 내세워주시며 이 세상 만물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어머니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 국가과학원 당위원회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들을 사회주의조국의 전초병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결사옹위를 말로써가 아니라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실현해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국가과학원 부원장 리의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또다시 받아안은 온정과학자주력지구는 전제없는 흥분과 감격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이 세상 주시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고도 살림질 때마다 천원백배를 베풀고 이 불, 집기류들까지 놓아주시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온정 어린 말씀은 우리 과학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지금 국가과학원의 전체

시도 저희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면서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 과학자들을 제일로 아끼시고 내세워주시며 이 세상 만물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어머니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 국가과학원 당위원회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들을 사회주의조국의 전초병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결사옹위를 말로써가 아니라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실현해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국가과학원 부원장 리의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또다시 받아안은 온정과학자주력지구는 전제없는 흥분과 감격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이 세상 주시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고도 살림질 때마다 천원백배를 베풀고 이 불, 집기류들까지 놓아주시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온정 어린 말씀은 우리 과학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지금 국가과학원의 전체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은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력지구를 현지도도하심던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 과학자들을 제일로 아끼시고 내세워주시며 이 세상 만물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어머니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 국가과학원 당위원회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들을 사회주의조국의 전초병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결사옹위를 말로써가 아니라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실현해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국가과학원 부원장 리의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또다시 받아안은 온정과학자주력지구는 전제없는 흥분과 감격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이 세상 주시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고도 살림질 때마다 천원백배를 베풀고 이 불, 집기류들까지 놓아주시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온정 어린 말씀은 우리 과학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지금 국가과학원의 전체

다.》고 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앞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녔던 때의 흥분과 감격을 안고 지질화연구소 소장 박현욱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옵는 순간이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안타까웠다.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환희보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과 더불어 과학연구성과와 하나 마련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하여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이 영광을 한생토록 잊지 않고 나라의 석란산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비롯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과학기술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 하겠다.》

환경공학연구소 소장 김만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을 뵈옵는 순간 끝없는 행복과 함께 솟구치는 격정으로 하여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구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일군들에게 자연에너지기연구의 초화도들인데 잘 믿어주어야 한다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때 이 세상의 모든것을 통째로 받아안은것 같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모습,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위대한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보다는 우리 과학자들이 이룩하기 위해 몸바쳐 투쟁하겠다.》

풍력에너지에 의한 새로운 체계개발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나라에 실지로 덕을 볼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이룩하고 헌신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중시 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갈 것이다.》

전기연구소 소장 김광혁은 《우리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솟구치는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 과학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도 또다시 국가과학원을 찾오시어 과학자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하늘같은 믿음과 온정을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다. 오늘의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발전소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학기술문제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성과를 더 많이 이룩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겠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연구성과를 더 많이 이룩하기 위하여 정열과 정열을 다 바치겠다.》

지질화연구소 연구사 최원정은 오늘이든 오일가 매일이든 오일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날과 날을 보내다가 뜻밖의 영광을 받아안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그토록 바라면서도 이루어 지지 못하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행복과 영광이 순간에 이루어졌다. 기념사진을 찍는 촬영장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차가 도착하자 똑같은 만세의 환희성이 터져오르고 온 은정과학자주력지구를 모신 기쁨과 격정으로 열매이였다.

촬영장으로 나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라는 안방에는 과학기술로 기어이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 확고부동한 철의 신념과 의지가 비껴있었고 손을 들어 답례하시는 태양의 모습에는 따뜻한 어머니의 정이 흘러 넘쳤다. 그 모습을 우러를수록 가슴속에는 뜨거웠던 열의가 흘러내렸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조국의 과학자가 된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경애하는 원수님을 과학기술로 받들어모시겠다.》

이번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고 해설을 헤드리는 최상의 영광을 지닌 자연에너지기연구소 연구사 김중성은 《위성과학자주력지구를 현지도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도입한 태양열온실을 보여드리고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고라고 생각하니 온 우주를 통째로 받아안은 심정이다.

저의 미숙한 해설을 몸소 들어주시며 반면에 환한 웃음을 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은 정녕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모습 그대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떠나시던 길을 멈추시고 몸소 저를 가까이 부르시어 따뜻한 손을 잡아주시던 영광의 그 시각을 한생토록 가슴깊이 간직하고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탐구의 열정을 강그러다 바치며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더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빛내어나가겠다.》고 하였다.

과학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같은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백옥같은 총정과 결사옹위의 실천으로 받들어갈 맹세가 차넘치고있다.

본사기자



일편단심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백옥같은 총정을 다 하리.

격동하는 시대는 비상한 창조정신을 지닌 일꾼들을 부른다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연유공급소 소장 정원일동무의 사업경험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꾼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최근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연유공급소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그칠새 없다. 종업원이 불과 10여명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단위가 어떻게 되어 편일 참가자들이 붐비고있는가.

연유공급을 합리적으로 하여 해마다 적지 않은 량의 연유를 절약함으로써 나라살

림살이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경험만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시대적미감에 맞게 꾸러진 일터에는 자력갱생의 힘, 자력갱생의 뜻이 비껴있고 수백명의 종업원을 차지하고있는 공장, 기업소를 못지 않게 갖추어진 후방토대는 사람들을 놀래우고있다.

이 성과는 기발한 착상력으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는 옳은 방법론을 찾아내고 당정책을 하나부터 열까지 한치의 드림도 없이 관철해나가고있는 소장 정원일동무의 역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당정책결사관철을 위해 부단히 사색하고 탐구하며 자그마한 공급소를 큰 단위들의 대렬에 당당히 세운 정원일동무의 사업경험은 이곳을 찾은 많은 일꾼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고있다.

공급 단위 위

중업원이 몇명 안되는 경영전략이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부터 앞세울수 있다. 생산도 아니고 공급을 맡은 이 단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정원일동무는 비록 자그마한 연유공급소라고 하여도 마땅히 자기의 뚜렷한 경영전략을 가지고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연유공급소는 국가에서 보장받는 연유를 중요대상건설장들에 공급하는 단위이다. 전국적으로 놓고볼 때 이 공급소와 같이 연유공급업무를 수행하는 단위들이 적지 않다. 그러면 한개 연유공급소를 책임진 일꾼은 어떤 경영전략을 세우고 실천해야 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정원일동무의 경험은 아주 교훈적이라고 볼수 있다.

사실 1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이 단위에서는 중요대상건설장들에 요구되는 연유공급을 제대로 따르세우지 못하고있었다. 나라의 연유사정이 긴장하고 국가에서 받은 연유공급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지 못해 다음날 계획본연유를 받지도 전에 바닥이 나곤 하였다. 그러다보니 바쁜 대상공사가 제기되면 모자라는 연유를 구입해야 할 때도 종종 있었다.

이렇게 말해진 연유공급을 원만히 하지 못해 예를 먹던 단위가 몇몇사이에서 연유가 남아돌아가는 단위로 되었다. 국가에서 더 보장받는것도, 하늘에서 푹 떨어졌다고 아니다. 바로 여기에 연유공급의 과학화실현을 위해 정원일동무가 내세운 전략이 있다.

이곳 소장으로 임명된 정원일동무는 무엇보다도 연유에 대한 수요와 그 소비실태를 정확히 료해하는데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것을 모르고서는 공급의 과학화에 대해 논할수 없었다. 정원일동무는 어떤 대상공사가 제기되면 여기에 동원되는 모든 물건기재들의 특성과 연유소비량, 계획된 공사량과 수송기리를 구체적으로 장악하는데 힘을 들였다. 이와 함께 해당한 거리를 직접 운행하면서 주행거리와 연유소비량을 간간히 측정했다. 그러한 사전준비로 진행된 연유공급은 소비한도를 극력 낮출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도로 되었다.

이곳 종업원들은 공급소의 울타리를 벗어난 운전사들속에도 자주 들어갔다. 그들에게 단정신기를 호소하고 해설선전자료도 진행한 결과 더 많은 절약예비가 조성되었다. 유초차들이 직접 대상건설장들에 나가 현지에서 공급을 진행하는 과정도 연유소비한도

경영 전략

를 낮추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높였다. 물론 이것은 한개 연유공급단위를 책임진 일꾼이라면 누구나 관심해야 할 문제이고 또 관심하고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연유공급원의 임무를 다했다고 말할수 있는가.

『아니다.』 정원일동무와 종업원들의 명백한 대답이다.

연유공급을 과학화하는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다루는 연유공급원들에게는 연유 한kg을 한kg으로, 한kg을 한으로 불출하는 또 다른 저울이 있어야 한다.

어느 한 대상건설대 모래문제에 긴장하게 제기되었던 있었다. 며칠만 있으면 모래가 떨어져 건설에 지장을 줄수 있었다.

그러한 때 공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모래원천을 확보해놓았다. 소식을 전해들은 정원일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대동강을 옆에 끼고 먼곳에서 모래를 날라오다니...)

물론 모래보장이 긴장한것만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공사기일만을 생각하며 발들의 불을 끄는 식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면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연유가 낭비되었는가.

그의 립장은 이러했다. 조금만 노력을 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해결될수 있는 문제를 단순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하려는 바로 여기에 나라의 귀중한 연유를 자기 피방울처럼, 살전처럼 여겨줄 모르는 무서운 립장이 있었다.

그는 즉시 지도국의 당조직을 찾아가 가까운 대동강에서 모래원천을 찾을 결심을 이야기했다. 당조직에서는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고 여러 일꾼들이 함께 강으

투자는 최소한, 실리는 최대한

투자가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일꾼들은 자금문제를 먼저 론하곤 한다. 이 공급소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연유를 다루는 단위이니 얼마든지 잘 꾸밀수 있었을것이라고 말하고있는것도 우연치 않다.

그렇지만 이곳을 직접 돌아본 사람들은 이 일터야말로 하나에서 열, 백을 얻을 줄 알고 작은것을 가지고 큰것을 만들어낼수 있는 단위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이기는 절약정신이 본신 혁명파업수행에서 증산을 안아왔다면 우리의 기사업에서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

로 나왔다. 대동강바닥을 파면 어디서나 모래가 나올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정원일동무는 모래가 있을만 한 곳은 다 두겨보았다. 3월이랑은 하지만 강바닥은 맨땅이다. 이른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찬물과 옷을 적시며 모래원천을 탐구하는 소장에게 달려온 종업원들이 이거야 우리 임무도 아닌데 왜 고생을 사서 하는가고, 이래라지 들어가자고 이야기했다. 그때 소장의 입에서는 추상같은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에 이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 말이요? 당에서는 바로 우리를 믿고 나라의 귀중한 한개 연유창을 맡기시 않았는가!』 정원일동무는 끝내 모래원천을 찾아내고 야달았다. 그렇게 얻어진 모래는 여러 대상공사를 제기일에 원만히 진척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을뿐아니라 그 과정에 적지 않은 량의 연유도 절약하게 되었다.

최근년간 이 연유공급소에서는 이렇게 마련된 예비로 계획보다 더 많은 대상건설을 보장하고있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필요한 연유를 신속히 공급할수 있는 든든한 토대로 구축해놓았다.

오늘 이 단위의 종업원들은 해마다 절약하고있는 연유량을 자기들의 『생산실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옳은 말이다. 자기 일터를 단순한 공급단위 가 아니라 생산단위와 같이 만든 그속에 정원일동무가 내세운 경영전략이 있고 파란 실적이 있다. 나라의 귀중한 연유를 극력 아끼고 절약하는것이야말로 생산이고 증산인것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전사적으로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한W의 전사, 한kg의 식량, 한방울의 물도 극력 아끼도록 하며 모두가 높은 애국심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간직해 해나가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우리 당의 강성국가건설사업을 실현으로 만들어나가는데서 1번수가 되어야 할 일꾼들부터 심장의 피를 펄펄 끓여야 하며 당정책결사관철을 위한 높은 안목, 완강한 실천력을 지녀야 한다.

한방울, 한방울의 연유가 부강국건설에 실지 함담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립장에서 사색하고 실천하는 정원일동무의 일본색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결론이 있다.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일꾼이라면 누구나 기발한 착상력을 지니고 부단히 사색하고 탐구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모자란것도 남게 되고 그만큼 조국의 전진에 큰 보탬을 주게 된다는것이다.

이공급소에는 두정의 발명중서가 있다. 전문과학연구기관이나 생산단위들에 가보아도 자주 보게 되는것이 바로 발명중서이다. 그것은 해당 기관, 해당 단위의 연구사업과 생산의 과학화사업에서의 성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단위에 수여된 중서들에서 유다른 점을 아끼고있다. 연유공급과는 거리가 먼 건설분야의 발명기재물이다. 화강석계곡과 막들을 리용하는 장식외벽과 시 공방방법, 콩크리트복을 리용하여

중속하는 온실시공방범이 그 제안들이다. 이 단위의 종업원들속에 건설전문가는 없다. 어떻게 이런 발명을 하게 되였는가고 물으면 그들은 처음에는 신통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의것을 소중히 여기니 막들도 금들쳐먹고 제법으로 일터에 번듯하게 꾸러미는 각오를 가지니 작은 원가로 특색있는 온실을 짓게 되였다고 이야기할 뿐이다. 사실이 그렇다.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감탄하는 여러 건물의 외벽이며 울타리의 돌벽화, 태양열온실 등은 정원일동무의 기발한 착상력과 이곳 종업원들의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는 자력갱생의 정신이 안아온 산물이다.

사실, 목욕탕, 식당 등이 자리잡고있는 2층짜리 건물의 외벽처리과정을 놓고 보자. 정원일동무는 값비싼 자재가 아니라 대동강에 흔한 자갈과 땅산에서 나오는 폐석들로 그 마감처리를 할 결심을 하였다. 종업원들과 함께 대동강에 나가 자갈들을 하나하나 수거했으며 어느 한 땅산에서 날라온 폐석들을 여러가지 크기로 깨어 규격에 따라 선별했다.

이들은 도안도 자체로 완성하였다. 그것을 보여 건물의 외벽에 각이한 색깔의 자갈과 폐석을 하나하나 붙여나갔다. 그런 방법으로 공급소울타리의 외벽에도 돌벽화를 형성하여놓았고 연유창고의 외벽처리도 훌륭히 마감하였다. 짧은 좀 들었었지만 건물과 울타리에 외장재를 전혀 바르지 않으면서도 미학성은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곳 종업원들이 공급소건물에 10여일만에 형성해놓았다는 상당한 족을 가진 천연돌벽화는 자연

미와 립체감으로 하여 전문가들도 놀라워하고있다. 어려해가 지났지만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다.

『제함을 믿는다는것은 곧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을 귀중히 여기는것이다. 바로 그런 불타는 애국심을 지닌 사람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 태양열온실을 일떠세운 과정도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태양열온실은 형상으로 트라스를 만들어 설치하고 그우에 유리나 막막을 씌우는 과정을 거쳐 건설된다고 불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형상을 전혀 쓰지 않고는 콩크리트지보에 의한 공법의 창안으로 일에 완전히 성공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건설한 태양열온실을 돌아보며 이런 방법도 있는가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경제적으로파장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다.

뚜렷한 자력갱생의 각오는 불가능을 모른다. 이들은 많은 자금이 들어야 한다는 수백mm의 연유창고건물의 천정수평방수공사에도 삼파토에 의한 마감처리방법을 창안도입하였다. 그 과정에 얼마만한 원가가 절약되었는가를 구하여 언급할 필요는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것은 결코 형상적인 말이 아니다. 비록 그것이 폐석과 막막돌이라도 자기것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 자기 힘을 굳게 믿는 정신만 지니면 얼마든지 훌륭한것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이 단위의 경험이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건설뿐아니라 어떤 사업에서나 제발로 걸어나가려는 임업이 투철할 때 부단히 새것을 창조할수 있음을 크지 않은 단위의 실례가 시사해주고있다.

로력이나 부지문제가 아니다

어느 부분, 어느 단위나 자체의 후방사업목표가 있다. 그 높이는 갈지 않고 수행결과도 다르다. 무엇보다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꾼들의 실력, 보다 중요하게는 창조정신에서의 차이이다.

정원일동무의 경험은 기탄없이 배워주었다. 이 과정에 그는 축산에서도 종자가 기본이며 가장 선진적인 문제라는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자그마한 단위에서 종자혁명의 불길이 타올랐다. 목표로 삼은 돼지종자 새끼를 많이 낳고 적게 먹으며 빨리 크고 고기가 좋을뿐아니라 면적이 강한 품종이었다. 정원일동무와 종업원들은 수많은 기술서적들을 탐구하면서 3월교잡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실패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교혼은 경험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이어졌다. 짓을 해서 4~5개월이면 70~80kg이 넘게 자라고 새끼를 한배에 19마리까지 낳으며 먹이도 적게 먹는 우량종을 끝내 얻어냈던것이다.

실력자가 된 일꾼의 뒤를 따라 종업원들도 한디하는 축산전문가들로 준비되였다. 이처럼 힘겨운 여겨지던 먹이문제도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어렵지 않게 풀렸다. 버

냉이땀에 의한 발효역미제조방법과 알곡 먹이에 첨가제를 넣는 방법이 함께 도입됨으로써 먹이단위는 1:2.5까지 낮아졌다.

『축산분야 아니다. 정원일동무는 버섯기름과 관련한 도시설계를 탐구하고 여러 전문가들도 찾아다니며 자신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결국 버섯기름에 착수하여 80여일만에 첫 수확을 하였으며 7차에 걸쳐 1의 기질로 그 이상의 버섯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는 종종 후방사업을 잘해보고 해도 부침때이 적소, 부지가 없소, 로력이 긴장하오 등의 원수님으로부터의 불만투성이 일꾼들을 보게 된다. 하지만 정원일동무는 결코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이 단위야말로 부침때와 부지, 로력이 극히 제한되어있다고 할수 있다. 실지 이곳 연유공급소에는 한때의 부침때도 없다. 그렇지만 이들은 새끼돼지나 고기수배에 의한 확대재산을 통해 먹이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있다.

배우경기장 몇개만 한 부지도 축산과 버섯 및 남새재배에서 결코 걸림돌이 아니었다. 공급소의 부지는 m²가 아니라 m³로 리용되고있다. 이와창고의 평면이 1m²나가 말뚝기초를 하고 기둥을 세운 다음 그우에 태양열온실을 건설하여 남새도 생산하고 돼지도 기를수 있게 되어있다. 그런가 하면 연유창고우에는 계사나우리, 닭우리, 칠면조우리가 꾸러져있다.

로력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종업원들이 두가지 지어는 세가지 일을 겸직하고있다. 이 단위에서는 해마다 백수백수라던 돼지뿐아니라 많은 계사나 닭, 칠면조를 키우고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700여kg이나 되는 꼴까지 생산하였다고 하니 작년도 무엇이나 결실한 하면 못하는것이 없는 일터이다.

정원일동무는 이렇게 생산한 고기로 후방사업에서 결정적인 개선을 가져왔을뿐 아니라 인민군대원호,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 벌였다.

일꾼의 자력 하나만으로써는 결코 뭘수 없는것이 바로 일터이다. 후방사업목표나 세우고 그것을 아래일꾼들에게 포지키며 결과를 총화하는 방법으로는 언제 기도 자기 단위에 서 이익을 일으킬수 없다. 견인력이 없는 기관차에 대해 생각할수 없듯이 대오를 이끌어야 할 일꾼은 누구보다도 실력이 높아야 하며 그러자면 비상한 창조정신을 지녀야 한다. 정원일동무의 경험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들의 심정에 대하여 정원일동무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얼마야 그렇게 매고 일꾼구실도 할수 있었습니까. 그러자면 자신부터가 배워야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축산에서 앞섰다고 하는 단위들에게 이어졌다. 현실은 훌륭한 학교였고 성공한 교과서였다. 많은 『교원』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기탄없이 배워주었다. 이 과정에 그는 축산에서도 종자가 기본이며 가장 선진적인 문제라는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자그마한 단위에서 종자혁명의 불길이 타올랐다. 목표로 삼은 돼지종자 새끼를 많이 낳고 적게 먹으며 빨리 크고 고기가 좋을뿐아니라 면적이 강한 품종이었다. 정원일동무와 종업원들은 수많은 기술서적들을 탐구하면서 3월교잡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실패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교혼은 경험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이어졌다. 짓을 해서 4~5개월이면 70~80kg이 넘게 자라고 새끼를 한배에 19마리까지 낳으며 먹이도 적게 먹는 우량종을 끝내 얻어냈던것이다.

실력자가 된 일꾼의 뒤를 따라 종업원들도 한디하는 축산전문가들로 준비되였다. 이처럼 힘겨운 여겨지던 먹이문제도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어렵지 않게 풀렸다. 버

냉이땀에 의한 발효역미제조방법과 알곡 먹이에 첨가제를 넣는 방법이 함께 도입됨으로써 먹이단위는 1:2.5까지 낮아졌다.

『축산분야 아니다. 정원일동무는 버섯기름과 관련한 도시설계를 탐구하고 여러 전문가들도 찾아다니며 자신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결국 버섯기름에 착수하여 80여일만에 첫 수확을 하였으며 7차에 걸쳐 1의 기질로 그 이상의 버섯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는 종종 후방사업을 잘해보고 해도 부침때이 적소, 부지가 없소, 로력이 긴장하오 등의 원수님으로부터의 불만투성이 일꾼들을 보게 된다. 하지만 정원일동무는 결코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이 단위야말로 부침때와 부지, 로력이 극히 제한되어있다고 할수 있다. 실지 이곳 연유공급소에는 한때의 부침때도 없다. 그렇지만 이들은 새끼돼지나 고기수배에 의한 확대재산을 통해 먹이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있다.

배우경기장 몇개만 한 부지도 축산과 버섯 및 남새재배에서 결코 걸림돌이 아니었다. 공급소의 부지는 m²가 아니라 m³로 리용되고있다. 이와창고의 평면이 1m²나가 말뚝기초를 하고 기둥을 세운 다음 그우에 태양열온실을 건설하여 남새도 생산하고 돼지도 기를수 있게 되어있다. 그런가 하면 연유창고우에는 계사나우리, 닭우리, 칠면조우리가 꾸러져있다.

로력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종업원들이 두가지 지어는 세가지 일을 겸직하고있다. 이 단위에서는 해마다 백수백수라던 돼지뿐아니라 많은 계사나 닭, 칠면조를 키우고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700여kg이나 되는 꼴까지 생산하였다고 하니 작년도 무엇이나 결실한 하면 못하는것이 없는 일터이다.

정원일동무는 이렇게 생산한 고기로 후방사업에서 결정적인 개선을 가져왔을뿐 아니라 인민군대원호,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 벌였다.

일꾼의 자력 하나만으로써는 결코 뭘수 없는것이 바로 일터이다. 후방사업목표나 세우고 그것을 아래일꾼들에게 포지키며 결과를 총화하는 방법으로는 언제 기도 자기 단위에 서 이익을 일으킬수 없다. 견인력이 없는 기관차에 대해 생각할수 없듯이 대오를 이끌어야 할 일꾼은 누구보다도 실력이 높아야 하며 그러자면 비상한 창조정신을 지녀야 한다. 정원일동무의 경험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들의 심정에 대하여 정원일동무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얼마야 그렇게 매고 일꾼구실도 할수 있었습니까. 그러자면 자신부터가 배워야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축산에서 앞섰다고 하는 단위들에게 이어졌다. 현실은 훌륭한 학교였고 성공한 교과서였다. 많은 『교원』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기탄없이 배워주었다. 이 과정에 그는 축산에서도 종자가 기본이며 가장 선진적인 문제라는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자그마한 단위에서 종자혁명의 불길이 타올랐다. 목표로 삼은 돼지종자 새끼를 많이 낳고 적게 먹으며 빨리 크고 고기가 좋을뿐아니라 면적이 강한 품종이었다. 정원일동무와 종업원들은 수많은 기술서적들을 탐구하면서 3월교잡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실패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교혼은 경험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이어졌다. 짓을 해서 4~5개월이면 70~80kg이 넘게 자라고 새끼를 한배에 19마리까지 낳으며 먹이도 적게 먹는 우량종을 끝내 얻어냈던것이다.

실력자가 된 일꾼의 뒤를 따라 종업원들도 한디하는 축산전문가들로 준비되였다. 이처럼 힘겨운 여겨지던 먹이문제도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어렵지 않게 풀렸다. 버



정 원 일 동 무 (왼쪽에서 두번째)



정 원 일 동 무 (왼쪽에서 두번째)

증산경쟁의 불길높이 물동수송에서 련일 혁신

합 흥 철 도 국 에서

새로운 진군속도,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대조선투쟁마다에서 대박, 대혁신을 일으키며 대한 당의 진투적소스를 높이 받들고 합흥철도국의 일꾼들과 수송진사들이 중요물동수송에서 혁신적경쟁을 이룩하고있다.

이곳 철도국에서는 김덕, 단천지구와 흥남지구 그리고 세포 지구 축산지건설장과 기관과 수송건설장들을 비롯한 일선장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짐을 제때에 실어다주어 매달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위 대 한 명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꾼들은 허장성세하거나 자리지킴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단위, 자기 부분의 혁명파업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조진 집행하는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정초 경에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학습하면서 철도국의 당, 행정, 기술일꾼들은 자신들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책임감을 더욱 깊이 자각하였다.

나라의 북부지구와 동서부지를 연결하는 중핵철도지구에 자리잡고있는 이 곳 철도국앞에는 정초부터 중요한 일장들이 나서고있다.

일 같이 방대하고 조건이 어려우수록 철도국의 일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다스림 되새기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가스화대 생산공장에 불소 찾아오시어 방대한 건설재와 철재같은 설비, 장치물들을 제때에 실어다주겠다고는 수송진사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며 일을 더 잘하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어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혁명령에의 마지막날까지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초월처럼 불태우신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을 그려보며 일꾼들은 이렇게 결심하였다.

(말만 앞세우는 일꾼이 되지 말고 실천을 앞세우는 일꾼이 되자.) 황성욱, 강현봉동무를 비롯한

철도국의 책임일꾼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대동강에 깊이 들어가는 증산경쟁의 혁명적열정을 높이 발휘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화전식정지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일꾼들은 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놓는데 맞게 기안차와 화차수리, 철길강도를 높이는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현지에 나가 제때에 풀이주면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가고있다. 철도국에서는 모든 단위들에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을 세우고 부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일꾼들은 수송지휘자의 사명감, 사명감, 해당 역들의 사명감, 운전지휘원들이 철저히 규정과 교범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정운혁, 유병봉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인민군대의 지휘관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기관차승무원들과

함께 열차를 타고 중요물동수송전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이 과정에 실정을 더욱 깊이 료해하고 결된 문제들은 즉시에 풀이하고있다.

이와 함께 일꾼들은 국야레 모든 단위들에서 5.18사수교정시운행추진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명감, 사명감은 사명지휘체제와 열차다닐때에 맞게 과학적인 명령을 주며 5개역선행지휘를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그들은 기관차대, 철길대, 역들과의 편제를 강화하여 립간지건설을 제때에 알려주며 대책을 세워주었다. 특히 야간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수송성과를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또한 철도국의 일꾼들은 열차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어 수송실적을 계속 끌어올리는데 힘을 넣고있다. 공명국동무를 비롯한 수송지휘자의 일꾼들은 립간부서들과의 긴밀한 령계임을 아예 손금보듯 장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숙하게 풀어나가고있다. 사명감, 사명감은 사명지휘체제와 열차다닐때에 맞게 과학적인 명령을 주며 5개역선행지휘를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그들은 기관차대, 철길대, 역들과의 편제를 강화하여 립간지건설을 제때에 알려주며 대책을 세워주었다. 특히 야간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수송성과를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을 위엄에 한결같이 펼쳐나 조건이 어렵고 불리할수록 조디를 단단히 하고 높은 책임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혁명적으로 일꾼을 벌려나가는 이 모든 일꾼들의 앞으로의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특기기사

뒤그루강병이소출을 높인 비결

성천군 삼덕축산전문협동농장에서

위 대 한 명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뒤그루농사를 잘하면 두벌농사문제가 해결될수 있습니다.』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받들고 성천군 삼덕축산전문협동농장에서 올해 감자 대 강병이, 강병이 대 감자를 심는 방법으로 두벌농사를 하여 알곡수확고를 높였다. 이때 농장에서는 네이랑은 강병이를 심고 다음 두이랑 또는 네이랑은 감자를 심었다. 그리고 6월 하순에 감자를 심었던 이랑에는 강병이모를 키우 시 강병이를 심었던 이랑에는 8월 하순에 감자를 심었다.

주목되는것은 6월 하순에 앞그루감자를 캔 다음 뒤그루강병이모를 심을 때 일출 2번 잘라 심어 지난 시기보다 정보당 수출을 평균 500~800kg, 최고 10이 나 더 낸것이다.

농장의 경험을 분석해보면 우선 일출과 수확을 제때에 해야 하고, 농장에서는 모판단계에서 일

이 3~4매에 한번 잘라온 다음 심을 때 한번 더 잘라심었다. 여러가지 리유로 일출을 자르지 못하오 강병이모를 심는 경우에는 모살이 늦어 후 인차 한번 잘라주고 일이 6~7매 되었을 때 한번 더 잘라주었다. 일출 자를 때에는 손으로 모아주고 일출기의 50%정도 되게 잘랐다.

이렇게 일출을 잘라심으니 강병이대로 영양이 많이 가가 때문에 굵어지고 마디가 짧아졌다. 다음은 종자선정을 잘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뒤그루 강병이는 생육기간이 짧은 품종을 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병이가 지라는 기간이 짧기때문에 이 불리하기때문에 초기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방법으로 강병이모를 심으니 품을 많이 얻어지 않고 수확고를 높일수 있었다. 또한 강병이영양단지를 적지 않고 적은 면적의 모판에서 모를 키워 실었다. 9월 중순부터 수경되어 여름기 시작하였는데 특징적인

본사기자 김창길

